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

곽은희*

〈차 례〉

1. 탈근대를 향한 토폴로지(topology)를 위하여
2. 열린 공간으로서의 만주
3. 유동하는, 혹은 경계를 넘나드는
4. 다른 삶, 혹은 탈주
5. 새로운 공간인가, 새로운 시각인가?

【국문초록】

이 글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한국인 노인들을 인터뷰한 구술 자료집 『검은 우산 아래에서: 식민지 조선의 목소리, 1910~1945(*Under the Black Umbrella : Voices from Colonial Korea, 1910~1945*)』를 텍스트로 삼아,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로서의 만주의 결을 부상(浮上)시켜 보았다. '만주행'이라는 공간적 실천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평범한 사람들은 비록 제국 일본이라는 '검은 우산' 아래에 있었지만, '지배/피지배', '전통/근대'의 틈새를 횡단하며 '자유/부자유'의 분할을 해체하고 있었다.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만주는 삶을 바꾸자는 욕망과 계획이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실천할

* 대구대학교 시간강사

수 있는 탈주 공간이자 자신의 신념을 간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전통/근대'·'가부장적 윤리/개인의 욕망' 사이의 갈등은 '만주행'이라는 공간적 실천을 통해 양립가능한 것으로 조정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을 간직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주로 추적한 것은 '만주'라는 공간에 실재하고 있는 이질적이고 다층적인 지점들이었으며, 이는 '공동척도가 없는 다원적 공간'으로서의 만주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자유의 흔적을 예각화하는 데 집중되었다. 만주를 향한 탈주의 움직임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탈 에너지는, 제국의 감시/통제 시스템이 쉽게 탐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국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내적 균열의 지점이기도 했다. 만주는, 파시즘의 통제 메커니즘이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예측불가능한 움직임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제국의 틈새였다.

주제어: 만주, 헤테로토피아, 자유, 틈새, 경계, 제국, 식민지, 탈주, 공간, 유동성

1. 탈근대를 향한 토폴로지(topology)를 위하여

나는 우리의 교요하고 외관적으로 부동적인 대지에
균열과 불안정성과 틈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
대지는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한 번 불안하게 꿈틀거릴 것이다.
- 미셸 푸코 -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는 "포스트모던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포스트모던은 근대성의 일부임에 분명하다"

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끝나는 상태의 모더니즘이 아니라 생성 상태에 있는 모더니즘"[1]이라고 답하였다. '탈근대'를 '근대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견지하고 근대의 극복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볼 때, 리오타르의 답변은 탈근대의 행방이 어디에 있는지 핵심적으로 간파하고 있다. 리오타르의 답변에서 '탈근대'는, 근대의 내부에 있으면서 언제나 '생성 상태'로 현존하고 있다. 자기 갱신의 가능성이 '내일 그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의식은 생성의 도정 위에 놓여 있는 모더니즘의 특성에 대한 근원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리오타르의 논의는 우리에게 폐기해야 할 지점과 탐색해야 할 지점을 모두 사유하도록 해 준다. 우선 폐기해야 할 지점은 역사를 시간의 스펙터클로 보려는 태도, 특히 탈근대를 '직선론적 시간'의 층위에서 인식하려는 태도이다. '전근대-근대-탈근대'라는 시간적 계열은, 탈근대를 미래에 배치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유보하는 한편, 이상적인 미래의 도래를 위해 현재를 억압하고 동원하는 데 인식론적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발전/저발전'의 위계 구도와 중첩되어 있는 이러한 시간적 계열은 지리적 상상력을 규율하면서 '근대적 서양'과 '전근대적 비서양'이라는 지리적 불균등성을 고착시킨다. 이 계열 속에서 전근대적 서양과 근대적 비서양의 동시공존 가능성은 배제[2]된다.

이 문제들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근대 내부에 '생성 상태'로 현존하고 있는 탈근대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적 계열 속에서 배제되고 마는 비균질적인 것들의 동시공존 가능성을 좀더 정열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

1)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지음, 유정완 · 이삼출 · 민승기 옮김,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1995, p. 177.

2)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 지음, 후지이 다케시(藤井たけし) 옮김, 『번역과 주체: '일본'과 문화적 국민주의』, 이산, 2005, p. 260.

식을 구체적인 논의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글은 '공간적 사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간적 사유'라는 문제틀을 놓고 볼 때, '공간'이란 전체로 통합하기 위해 퍼즐처럼 맞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간'은 오히려 통일적 준거 없이 나누어지며 불연속적인 요소로 부서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간적 사유'란, '비총체화(더 이상 통일된 전체 또는 최종 형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통약 불가능성(더 이상 공통의 척도 또는 동일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립 불가능성(다양하게 분리된 조각은 상이한 영역을 차지한다)'으로 특징지워지는 '탈구조주의적 공간성'[3]과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탈구조주의적 공간성'은 '공동척도가 없는 다원적 공간'을 의미하는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4]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될 것이다.

사이드(Edward Said)는 푸코(Michel Foucault)의 도식대로라면 "개인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전해 저항하기가 무망한(hopeless) '권력의 미시물리학' 속에서 해체" 되어버림을 비판하면서, 푸코 저작의 주요 한계 가운데 하나가 "저항 불가능한 식민화 운동"의 묘사임을 지적하였다.[5] 그러나 필자가 판단하건데 푸코는, 사이드의 비판과는 달리, 저항의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를 포착할

---

3) 마르쿠스 도엘(Marcus A. Doel) 지음, 최병두 옮김, 「지리학에서 글렁크 없애기: 닥터 수스와 질 들뢰즈 이후의 공간과학」, 마이크 크랭(Mike Crang)·나이절 스리프트(Nigel Thrift) 엮음, 『공간적 사유(Thinking Space)』, 에코리브르, 2013, p. 216.

4)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다양한 방면의 연구에 물꼬를 터 준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배정희, 「카프카와 혼종공간의 내러티브 -『국도 위의 아이들』과 헤테로토피아」, 한국카프카학회, 『카프카연구』 제22권, 2009. 12. pp. 43-60. ; 강정민·김동일, 「미셸 푸코와 미술관에 대한 테제들」,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66호, 2012. 12. pp. 135-160. ; 구연정, 「상상과 실재 사이 : 헤테로토피아로서 베를린 : 발터 벤야민의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시절」에 나타난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카프카학회, 『카프카연구』 제29권, 2013. 6. pp. 123-142.

5) 데릭 그레고리(Derek Gregory) 지음, 최병두 옮김, 「에드워드 사이드의 상상적 지리」, 마이크 크랭·나이절 스리프트 엮음, 위의 책, p. 545.

수 있는 것이 푸코와의 대담 「권력문제에 대한 해명」[6]이다. 이 대담에서 푸코는, 『광기와 문명』과 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읽는 것은 본질적으로 현 실제 안에서 어떤 가능한 경로를 추적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실한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많은 독해가 '권력의 전지전능함'을 입증하는 데로 치우친 것을 비판하며 "권력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밝힌다. 자신의 저작이 '저항할 수 없는 권력의 미시물리학'으로 독해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푸코는 '저항'의 문제에 대하여도, "대문자 P의 권력, 즉 지구를 벗어난, 일종의 달의 출현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권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 것"인데, "이런 종류의 분석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선을 긋는다. 푸코가 열어두고 있는 '저항의 가능성'이란, 현재 여기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초월적인 것도 아니며 '지배/피지배' 혹은 '권력/저항'의 엄격한 분리에 의해서 포착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푸코의 '외부지대'는 국지적이며 특이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독특한 '공간'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82년 푸코와의 인터뷰를 다룬 「공간, 지식, 그리고 권력」[7]을 읽어 보면, '공간' 개념은 푸코 저작 전반을 관통하는 사유의 핵심에 놓여 있다.[8] "해방 또는 저항의 힘으로서 기

---

6)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와의 대담, 「권력 문제에 대한 해명(Clarifications on the Question of Power)」, 미셸 푸코 외 지음, 정일준 편역,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5, pp. 289-302.

7) 미셸 푸코 지음, 「공간, 지식, 그리고 권력」, K. Michael Hays 편, 봉일범 옮김,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Spacetime · 시공문화사, 2010, pp. 565-567.

8) 푸코는 이 인터뷰(「공간, 지식, 그리고 권력」)에서 공간은 그 어떤 공동체적 삶의 형식에서도 기초적인 역할을 하며, 공간은 어떤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도 본질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능하는 특별한 건축적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푸코는 "자유는 하나의 실천"이며, 이러한 "자유의 실천, 사회적인 관계들의 작용,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게 될 공간적인 분배 사이를 분리하는 것은 다소 독단적일 수 있다"고 답변한다. 푸코는 자유의 실천, 혹은 자유의 실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사회적 관계들이 '공간'과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있었던 셈이다. 푸코는 "권력의 효율적인 확대를 허용하는 것, 혹은 저항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를 실현하는 기술인데, 그러한 사회적 관계들은 공간적으로 짜여지고 분절된다"[9]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 담론에서도 중심적인 위치[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자유의 실천과 공간은 어떻게 뒤얽혀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개념이 바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이다. 원래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은 '유토피아(utopia)'와의 유비 속에서 창안된 것이다. 『말과 사물』 서문에서 푸코는 '유토피아'가 '실재적인 장소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전개될 수 있는 균질의 공간'인 데 착안, '유토피아'와는 대조적인 장소인 '헤테로토피아'를 제시한다. '헤테로토피아'는 실재적인 장소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장소의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사물들의 공통 요소들을 추출해 낼 수 없는 이질적인 공간[11]이다. 이 글은 '헤테로토피아'가 "서로 다른 기능 또는 거의 상반된 기능들을 갖도록 주어진 사회적 공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독특

---

9) 같은 글, p. 566.

10) 크리스 필로(Chris Philo)는, 공간적 관계에 대한 푸코의 민감성이 타자성의 역사에 기하학적 전환을 도입했다고 보았다. 푸코가 포스트모던 지리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크리스 필로 지음, 최병두 옮김, 「푸코의 지리학」, 마이크 크랭 · 나이절 스리프트 엮음, 앞의 책, pp. 351-403.

11) 미셸 푸코 지음, 이광래 옮김, 『말과 사물 : 인문과학의 고고학』, 민음사, 1986, pp. 14-15.

한 공간들"[12]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만주'에 관한 논의[13]와 함께 풀어나갈 것이다.

2. 열린 공간으로서의 만주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에 앞서 2장에서는 "왜 '헤테로토피아'라는 스펙트럼을 통하여 만주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며 그간의 만주 연구를 성찰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식민지 시기 각종 미디어에서 유포되어 있던 만주 표상 중 하나는, 만주로 가면 일확천금의 기회를 잡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도전과 풍요의 판타지이다. 모더니티의 기획이 약속하는 진보와 발전의 꿈, 만주는 바로 그러한 근대적 판타지가 실현될 수 있는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만주에 대한 낭만적 판타지의 기저에 놓여 있는 기대와 이상은 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명랑한 방식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만주를

12) 미셸 푸코 지음, 「공간, 지식, 그리고 권력」, K. Michael Hays 편, 봉일범 옮김, 앞의 책, p. 579.

13)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통해 '만주'를 인식하고자 하는 문제 의식은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가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야마무로 신이치는 헤테로토피아를 "자기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계와는 다른 이질적인 세계"이자 "거기에 감으로써 완전히 다른 체험, 완전히 다른 의식을 가지게 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만주가 그런 공간"이었다고 보았다(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지음, 윤대석 옮김,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p. 18). 야마무로 신이치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만주가 국민국가의 성질과 제국의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공간의 질을 가지는 '국민제국'이었다는 점이다. 야마무로 신이치의 논의는 그간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조망되던 '만주'를 넘어서, 만주가 원래 지니고 있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면모를 조명하는 데 상당히 유효하다.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표상하는 작업[14]은 엄밀히 말하면, 만주를 ‘독해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논의에 따르면, ‘독해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은 가장 기만적이고 가장 날조된 공간이다. 독해 가능성의 그래픽적인 효과가 전략적인 의도와 행위를 은폐하는 까닭이다. 독해 가능한 지점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행위는, 드러내기보다는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공간이 긴장과 비틀거림으로 가득 찬 힘의 장(場)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특정한 공간을 독해 가능한 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그 공간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15] 여기서 르페브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실재로서의 대상’과 그것의 ‘표상’ 간의 간극과 틈새이다. 대상과 표상 간의 간극이 커질수록 표상은 실재를 점유하고 장악하게 된다.

독해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은, 실제 그 공간이 지니고 있는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균질한 표상으로 독해된 순간 공간은, 특정장소에서 무엇이 ‘자연스럽고’ 무엇이 ‘옳은가’의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작용하는 ‘경관(landscape)’[16]으로 전

---

14)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행문과 시찰기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파간다화된 만주 표상’이다. 전시체제기에 창작되었던 만주 기행문은, 만주라는 공간에 대한 조망권을 선취하여 제국이 욕망하는 ‘만주’ 표상을 만들어냄으로써 만주에 관한 대중들의 욕망을 추동하며 관리하는, 욕망의 장소지(topography)였다. ‘욕망의 장소지’라는 관점에서 포착되는 만주 기행문은, 이상향에 대한 추구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의식을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 장소에 투영하여 발현하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삶을 개조하고 동원하는 프로파간다로 활용되고 있다. 기행문과 시찰기를 통해 전시된 세계는 제국의 총동원 장치 속에서 개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동원하기 위한 밑그림을 제공한다(곽은희, 「프로파간다화된 만주 표상과 욕망의 정치학」, 만주학회, 『만주연구』 제16집, 2013. 12, p. 180).

15)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지음,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pp. 229-233.

16) 돈 미첼(D. Michell) 지음, 「경관(landscape)」, 데이비드 앳킨스 외 3인 편저, 이영민 외 4인 옮김, 『현대 문화지리학』, 2011, 논형, p. 114.

환된다. 사실 경관은, 권력을 가진 사회적 이익집단이 자신의 의도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의와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때나 우호적인 청중을 조직할 때 이용되는 이데올로기적 구성물[17]이다. 그런데 경관이, 만들어진 세계가 피할 수 없는 것인 양 재현하면서 문화적·사회적 구조를 자연화한다[18]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이데올로기와 경관, 경관과 사회관계 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만주'는 그곳을 바라보는 주체의 위치에 의해 경관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대 초기에 만주는 국제질서의 재편을 초래할 진앙지[19]로 표상된다. 영국인 기자 위그햄(H.J. Whigham)은 1901년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해 만주 지역을 여행했는데, 이때 쓴 기행문 『Manchuria and Korea』(1904)[20]에서 만주는 조선[21]과 함께,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되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열강들의 지리학적 경쟁의 중심지로서의 만주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동아시아의 운명과 함께 휘청거리며 "해

17) 돈 미첼(D. Michell)지음, 류제헌·진종헌·정현주·김순배 옮김, 『문화정치 문화전쟁(Cultural Geography)』, 살림, 2011, p. 239.

18) W. J. T, Mitchell, ***"Introduction", Landscape and Power***, edited by W. J. T, Mitchell, secon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p. 2.

19) 최정수, 「미국의 세계안보전략과 만주 개방정책의 실체」, 박준기·최정수·정상수·최재희 지음, 『아시아의 발칸, 만주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07, p. 86.

20) H. J. Whigham, ***Manchuria and Korea,*** New York : Charles Scibner's Sons, 1904. ; 여기서는 이영옥 옮김, 『영국인 기자의 눈으로 본 근대 만주와 대한제국』, 살림 출판사, 2009년판을 참조함.

21) 위그햄의 만주 기행문에서 조선은 "동양이라는 커대란 세계의 축소판"으로서 "이권 사냥꾼들에게 행복한 사냥터"로 표상되고 있다. 위그햄은 "사실 지금 조선의 독립은 라이벌 열강들에 의해 유지되는 허상"에 불과했음을 포착하며, 이러한 조선의 운명은 만주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헨리 위그햄((H. J. Whigham) 지음, 이영옥 옮김, 위의 책, pp. 252-255.

적과 관리, 그리고 비적과 농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정도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공간"[22]으로 표상되고 있다.

만주 사변 이후 만주는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어 '만몽(滿蒙)'[23]으로 범주화되며, 이를 기반으로 '일만(日滿) 경제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지리적 경계 내에 배치된다. 청일전쟁・러일전쟁・만주사변・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제국 일본이 만주를 표상하는 우월적인 지위를 점유한 것과 맞물려, 만주는 제국의 유토피아적 판타지를 투영하는 대상으로 재현된다.[24] 또 다른 한편으로 만주는 이등 국민

---

22) 같은 책, p. 143.

23) 조선에서 '만몽'이라는 지리적 경계 및 범주는 최남선의 「滿蒙文化」(1941), 「만주 건국의 역사적 유래」(『신시대』, 1943.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남선의 만몽문화론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곽은희, 「만몽문화(滿蒙文化)의 친일적 해석과 제국 국민의 창출 - 최남선의 「滿蒙文化」와 「滿洲建國의 歷史的 由來」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제47집, 2005. 12. pp. 243-278. ; 강해수, 「최남선의 '만몽(滿蒙)' 인식과 제국의 욕망」,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2006년 가을호, pp. 58-89. ; 전성곤, 「만주 '건국대학' 창설과 최남선의 건국신화론」, 한국일어일문학회, 『일어일문학연구』 제56권 2호, 2006. 2. pp. 165-185. ; 조현설, 「민족과 제국의 동거 - 최남선의 만몽문화론 읽기」,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2010, pp. 15-36.
경성제국대학에서 진행된 '대륙' 연구에 관한 연구로는 정규영, 「콜로니얼리즘과 학문의 정치학 - 15년전쟁하 경성제국대학의 대륙연구 -」, 교육사학회, 『교육사학연구』 제9권, 1999. 7. pp. 21-36. ; 정준영, 「경성제국대학의 '대륙' 연구 - 학술연구조사의 정치성과 식민지대학의 사명」, 만주학회・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공동주체 학술대회 발표집 『만주 연구의 스펙트럼』, 2014. 1. pp. 27-43을 참조할 것.

24) 가령 만주에 성행했던 일본어 관광버스는 만주 도시를 '관광 낙토(樂土)'로 등장시키는 하나의 상연 장치로서, 제국의 판타지를 공연하는 '극장적 권력'이었음을 분석한 연구(까오유엔(高媛), 「'낙토(樂土)'를 달리는 관광버스 - '만주' 도시와 제국의 드라마투르기」,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 근대와 젠더 세미나팀' 옮김, 요시미 슌야(小森陽一) 외 지음, 『확장하는 모더니티』, 소명출판, 2007, pp. 210-243)나, 만주국 수립 이후의 만주 관광이 최첨단 근대도시를 관람케 하는 이벤트로 기능하면서 만주가 제국 일본의 미래상을 선취한 근대적 공간으로 변용되었음을 밝힌 연구(임성모,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

으로서의 조선인의 욕망이 투영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때 만주는 조선인이 제국의 '일등 국민'으로 도약할 수 있는 현실을 제공하거나 그런 현실을 꿈꾸게 하는 공간[25], 혹은 또 다른 식민화의 주체를 꿈꾸며 '진출'의 수사학으로 명랑하게 재현·수식된 낭만적 공간[26]으로 표상된다.

해방 이후 남북한 체제경쟁의 맥락에서 만주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국가의 기억관리가 본격화되었고,[27] 만주를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과 욕망에 따라 만주가 경관화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의 만주 연구는 크게, '친일/항일'의 공간으로서의 만주[28], 근대 국민국가의 인적 네트워크 및 리더십 형성의 기원으로서의 만주[29], 디아스포라의 공간으로서의 만주[30]로 범주화할 수 있다.

구소 엮음,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2010, pp. 37-63)는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25) 김철, 「몰락하는 신생: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상허학회, 『상허학보』 제9집, 2002, pp. 123-159.

26) 이경훈,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한국근대문학회, 『한국근대문학연구』, 2003. 4. pp. 92-119.

27) 한석정, 「박정희, 혹은 만주국판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제3호, 2010. 8. p. 123.

28) 한국근대문학에서 '국책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만주'를 연구한 성과로는 다음과 같다.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 조진기, 『일제 말기 국책과 체제 순응의 문학』, 소명출판, 2011.

29) 강상중·현무암 지음, 이목 옮김,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 책과 함께, 2010.

30) 만주 디아스포라 연구는 먼저, '민족' 범주를 절대화하면서 '(유)이민문학', '망명문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졌다(오양호,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 문학연구』, 문예출판사, 1996). 그러나 전지구적인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디아스포라 연구는, 트랜스내셔널한 이동과 횡단이 가져온 혼종성(hybridity)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민지 조선인들의 사유 속에서 만주는 모순적이고 혼종적인 공간이었음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정종현,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 제28집, 2005. 6, pp. 229-259를 참조할 것.

만주의 경관화 현상과 더불어 '민족' 혹은 '근대 국민국가'와 같은 범주는 '만주'를 기억하고 표상하는 데 특권화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족'이나 '국가' 같은 스펙트럼을 통과하면서 만주는 내셔널 담론을 확장하는 데로 환원되는데,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가 지역체제 수준에서 서로 교차하고 있었던 만주의 트랜스내셔널한 성격은 휘발되어버린다. 균질화될 수 없는 만주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정체성이 특권화된 단일 범주 속으로 함몰됨으로써 만주라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던 혼돈·모순·갈등 들의 행방은 묘연해지고 마는 것이다.[31] 그렇다면 거대한 스펙트럼으로 회수되지 않는 일상의 다층적인 면모들, 모순과 균열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복잡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주를 '독해 가능한 공간'으로 표상하는 것을 넘어 만주라는 공간에 내재해 있었던 긴장과 비틀거림을 복원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요컨대 만주는 열린 공간으로 사유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때의 '열린 공간'이란 균질적이고 빈틈이 없으며 항상 '거기' 존재한다고 말하는, 혹은 텅 비어 있어 언제라도 채워질 수 있다고 여기는 공간과는 변별된다.[32] 만주를 "열린 공간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공간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보는 전통적인 공간 기술 태도를 해체하고, 공간적인 것을 헤테로토피아적인 방식으로 탐구함"[33]을 뜻한다. 즉 만주를 특정한 스펙트럼에 의거하여 독해하려하는 태도에 앞서, 이미 만주라는 공간에

---

31) 이러한 문제의식은, "만주 웨스턴이 만주의 시간대와 민족의 단층들을 무시, 균질적인 만주로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한 한석정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석정, 「만주 웨스턴과 내셔널리즘의 공간」,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제84집, 2009. 12, p. 10을 참조함.

32)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톨렌(Georg Christoph Tolen), 「열린 공간과 상상력의 헤테로토피아」, 슈테판 귄첼 엮음, 이기홍 옮김, 『토폴로지 : 문화학과 매체학에서 공간 연구』, 에코리브르, 2010, p. 128.

33) 같은 글, p. 127.

실재하고 있는 이질적이고 다층적인 면모들, 차이들의 공존 양상을 탐구한다는 것이다.[34]

이 글은 앞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한국인 노인들을 인터뷰한 구술 자료집 『검은 우산 아래에서: 식민지 조선의 목소리, 1910~1945(이하 검은 우산 아래)』[35]를 텍스트로 삼아 그 '결'을 포착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 작업은 해석의 안정적인 구조와 결별하는 동시에,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만주의 모습을 추적하는 데로 초점화될 것이다.

3. 유동하는, 혹은 경계를 넘나드는

'삶을 바꾸다', '사회를 바꾸다'는 식의 말은
적합한 공간의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 르페브르 -

『공간의 생산』에서 공간이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했던 르페브르는, 공간이란 고작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장소가 아니라 능동적인 장소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삶을 바꾸다'·'사회를 바꾸다'는 식의 말이 정작 적합한

---

34) 그렇기 때문에 게오르그 크리스토프 톨렌은 열린 공간을 일컬어 "공간을 독해 가능한 곳으로 재현하고 표상하려는 행위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며, 재현과 표상 활동에서 일종의 '결(缺)'로 자신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글, p. 129를 참조함.

35) Hildo Kang, ***Under the Black Umbrella : Voices from Colonial Korea, 1910~1945***, Cornell University, 2001. 이 글에서는 힐디강 지음, 정선태·김진욱 옮김, 『검은 우산 아래에서: 식민지 조선의 목소리, 1910~1945』, 산처럼, 2011을 참조함. 이 책은 "일제 식민 시대를 살았던 한국인들로부터 구술사를 수집하여 일제 치하의 삶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발견"하고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구술 자료집이다.

공간의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르페브르의 주장이다. 이는 '권력의 기하학'으로 연결되는 푸코의 공간 인식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그래서 르페브르는, '바꾸자'는 생각은 점진적으로 혹은 비약적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공간적인 실천을 실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였다. 르페브르는, '삶을 바꾸자'는 계획이 공간적 실천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잊어버릴 만하면 잠깐씩 표면으로 부상하는 정치적 구호에 그칠 것[36]이라며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구술 자료집『검은 우산 아래에서』를 보면, 식민지 조선인들이 만주를 통하여 실현한 '산발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차원의 공간적 실천'과 그에 관한 다차원적인 기억을 대면할 수 있다. 이 구술 자료집에서 부각하고자 하는 것은, 식민지를 압도하는 제국의 지배 메커니즘이 아니라, '검은 우산'처럼 한반도 상공에 드리운 제국의 그늘 밑에서 당대 대중들이 경험한 일상이다.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독자적인 삶의 양식을 다양한 층위에서 대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술집을 통해 추적한 만주의 모습은, 만주국 수립 이후 조선총독부와 만주국 정부가 정책적·조직적 대량 이민[37]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파간다 층위의 만주 표상과는 다른 맥락에 놓여 있다.

사실『검은 우산』에서 만주에 관한 부분은 식민 시기를 기억하는 인터뷰 사이에 조금씩 드러나는 일화 몇 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기억의 편린(片鱗)으로 드러나는 만주의 일상을 따라가면서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만주'의 결을 부상(浮上)시킬 것이다. 인터뷰 사이로 포착되는 만주는, '삶을 바꾸자'는 욕망과 계획이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공간이었다. 1910년 평안북도 출생

36) 앙리 르페브르 지음, 양영란 옮김, 앞의 책, pp. 115-116.

37) 김기훈,「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 제국내 이민정책의 유산」, 한석정·노기식 편,『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pp. 201-211.

의 강병주(남, 은행지점장) 씨와의 인터뷰를 보자. 강병주 씨의 할아버지(강천달)는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며느리를 호적에 올리기 위해 며느리의 이름을 짓고, 아들을 오산학교에 보내는 등, 당시로서는 상당히 빨리 개화한 인물이었다. 외아들을 의사로 키우고자 했던 할아버지 덕분에, 강병주 씨의 '아버지'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 그리고 학업을 마친 후에 고향 마을에서 걸어서 20분쯤 걸리는 '남천' 근처에 병원을 열었다. 그런데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아버지'가 선택한 것은 뜻밖에도 '만주행'이었다.

>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결혼한 데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사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해서 아버지는 재산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말을 남기고 만주로 떠났어요. 의술을 행하며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지요. 그 뒤로는 어머니가 모든 집안 살림을 돌보면서 소작인들을 관리했어요.
>
> 그런데 만주 국경은 우리 마을에서 아주 가까웠어요. 아버지는 1년에 몇 번씩 가족들을 만나러 왔던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06년에서 1928년에 태어난 자식이 모두 일곱 명이나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우리 3남 4녀를 모두 고등학교와 전문학교에 보냈지요.[38]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행간을 통해 유추해 보면, '아버지'는 전통 속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일찍이 개화한 부친 덕분에 신교육을 받으며 근대화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경험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누구보다 심각한 심리적인 갈등[39]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전통과 근대, 그리고 가부장적 윤리와 개인의 욕망 사이의 갈등은

---

38) 힐디강 지음, 정선태 · 김진욱 옮김, 위의 책, p. 35.

39) 이는 표면적으로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결혼한 데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사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대담자의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주행’이라는 ‘공간적 실천’을 통해 양립가능한 것으로 조정된다. 결정적으로, 만주행을 기점으로 아버지는 전통·가문·토지에 매어 있어 ‘이동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불현듯 떠났다가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유동적 존재’로 거듭난다. 아버지는 조선과 만주를 오가며 부재했다가 곧 출현하며, 출현했다가 곧 부재한다.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는 듯하지만 모든 곳에 있다. 그는 떠나기 위해 돌아오고 돌아오기 위해 떠난다. 어버지가, 재산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말을 남기고 어느날 홀연히 떠난 것은 액체처럼 이리저리 흘러다니고 기체처럼 가볍게 떠나기 위해서이다. 어머니에게 남긴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옴과 떠남 사이에 존재하기 위해 포기한 것, 즉 자신을 묶어놓는 모든 견고한 것들[40]을 상징한다.

의술을 행하며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한 아버지의 존재론적 전환은 ‘만주’라는 공간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41] 도리를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아버지’의 삶은 ‘협력/저항’, ‘현실/이상향’, ‘식민/탈식민’과 같은 이분법적 틀로 설명할 수 없다. 아버지의 삶은 오히려, 이분법이 구축하고 있는 첨예한 구분선에 침식을 가한다. 아버지에게 만주는, 가부장적 질서 하에서 정상으로 일컬어지는 일체의 전통을 지워버리는 ‘반(反)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42]였다.

---

40) 지그문트 바우만(Zigmunt Bauman)에 의하면, 고체 근대에서 부와 권능은 지리적 개념이나 ‘토지’라는 장소에 묶인 채 움직일 수 없는 수송불가능한 것들이었다(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이일수 옮김, 『액체근대(Liquid Modernity), 도서출판 강, 2009, p. 184).

41) 만주국에서는 의사법(1936)·국민의료법(1943)·의료단체법(1944) 등이 제정되었으며, 1938년 말·1939년 초에 조선인 의사의 등록이 급증하였다. 조선인 의사들은 꾸준히 증가하여 만주국 패망까지의 총합은 전체 2,064명 중 261명으로 약 13%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는 한석정,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사회적 지위」,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제31권, 2011. 3, pp. 29-30을 참조함.

42) 푸코는 1966년 12월 21일 프랑스의 라디오 방송의 강연 「헤테로토피아」

만주 국경이 마을에서 아주 가까웠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선택한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가능하도록 해 주는 지리적 조건이다. 만주 접경 지역에서 '조선과 만주'는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43]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좀더 타당할 것이다. 이 흐름의 공간 안에서 만주는 아버지에게 '다른' 삶을 상상하고 꿈꾸며 사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공간, 즉 "우리 자신을 밖으로 이끄는 공간"이자 "우리를 할퀴고 들볶는" 이질적인(heterogeneous) 공간[44]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이다.

다른 삶에 대한 충동과 사유가,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생을 타인의 삶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준 관조의 원천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관조자의 유일한 특권에 대해 "자신의 매여 있음에 대한 통찰과 그러한 깨달음이 가져다주는 눈곱만큼의 자유"[45]라고 표현했던 아도르노의 말처럼, 다른 삶에 대한 충동은 자신의 삶이 매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 주었고, '만주행'이라는 공간적 실천을 통해 아버지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었다. 헤테로토피아가 여기 이곳의 실재이면서도 탈영토화를 향한 이질적인 에너지를 품은 것처럼, 아버지는 '의사로서의 삶/아버지로서의 삶', '전통/근대', '식민지 조선/만주'의 틈새, 그 경계 위에 놓여 있었으며, 바

에서, "절대적으로 다른 공간이자 반(反)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는 사회의 정상적 일상적 공간에 반하는 공간, 그것들을 지워버리는 공간"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공간은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 정원, 감옥학교, 병원, 공장, 이질적 공간을 구성하는 선박, 병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Michel Foucault, ***Le corps utopique suivie de les hétérotopies***, Nouvelles Editions Lignes, 2009, p. 26. 여기서는 허경,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초기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 제3권 제2호, 2011. 12. pp. 242-243을 참조함.

43) 돈 미첼 지음, 류제헌 · 진종헌 · 정현주 · 김순배 옮김, 앞의 책, p. 573

44) Michel Foucault, ***Of Other Spaces, Heterotopias***, http://www.foucault.info/documents, 2013년 12월 27일 검색.

45)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지음, 김유동 옮김, 『마니아 모랄리아 :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 길, 2005, p. 43.

로 그 경계의 위상학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경계의 위상학 가운데 우리는 그 '비결정성'을 좀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때 '비결정성'이란 아버지의 삶을 '자유'로 이끌게 된 핵심적인 자질이기도 하다. 사이토 준이치는 자유를 재정의하면서, "실제로 무엇인가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처럼' 존재할 수 있는 비결정성"을 자유의 중요한 인자로 꼽았다. 사이토 준이치(齋藤 純一)에 의하면, 흔들림 없는 자기 지배가 오히려 질곡이다.[46] 아버지를 자유롭게 해 주었던 '비결정성'이란, 아버지가 만주행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실천하면서 겪어야 했던 갈등과 흔들림을 가리킨다. 이 존재의 요동은, 자신의 삶이 다른 힘에 의해 장악되거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 주는 이질적 에너지들의 팽팽한 긴장이자 생기 있는 움직임의 표지이다.

4. 다른 삶, 혹은 탈주

> 19세기 이후 국민화의 과정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으로, 좀더 강하게 말해, 일종의 저항으로서 디아스포라적인 시각이 중요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47]
> - 서경식 -

만주는 '정상적' 공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질적인 공간, 혹은 반(反)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였기 때문에, 조선으로부터 배제된 이들의 탈주 공간이 되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검은 우산 아

46) 사이토 준이치 지음, 이혜진 · 김수영 · 송미정 옮김, 『자유란 무엇인가: 벌린, 아렌트, 푸코의 자유 개념을 넘어』, 한울아카데미, 2011, p. 109.

47) 서경식 · 서민정 · 김용규 · 이용일 지음, 『경계에서 만나다: 디아스포라와의 대화』, 현암사, 2013, p. 16.

래에서』에서 만주는 조선과의 '관계' 내에서 기능하는 헤테로토피아[48]라고 할 수 있다. 수원고등농림학교 재학 시절 농부들에게 역사·농업·반일 사상을 가르치며 농촌계몽운동을 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 김찬도 씨는 심한 고문을 받고 독방에 감금되었다. 고향인 황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호관찰 3년에 처한 그는 감옥에서 나온 직후 이옥현 씨와 결혼을 했으며, 보호관찰이 끝난 뒤 만주로 떠났다.

이옥현 씨와 김찬도 씨의 삶은 '당대의 신여성과 맑시스트 청년의 결혼', '전과자가 된 남편과 만주로 이주', '조선으로의 귀향', '해방 후 월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과 갈등적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들에게 만주는, 자신들의 갈등적 투쟁이 국지적이고 이질적인 파편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 준 공간이었다.

> 만주 - 1933년 4월
>
> 1933년 3월 남편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 모든 제약이 해소되자마자, 아버지는 우리 부부와 어린 아들이 조선을 떠나 만주에서 교사직을 얻을 수 있도록 주선해줬어요. 직장을 조선이 아닌 곳에서 구해야 했던 건 전과자인 남편이 조선에서는 어디서도 취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경찰이 남편의 신원 서류에 빨간 줄을 그어놓았어요. 이 사람은 직장을 구하기엔 적당하지 않다, 과거에 뭔가 나쁜 일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국경 너머 만주에 일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렇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빨간 줄 때문이기도 하고, 나를 구식 며느리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죠.[49]

---

48) "Of Other Spaces"에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나머지 모든 공간과의 관계 안에서 기능하므로, 헤테로토피아의 특정 현장이 '절대적 차이' 공간이 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장세룡, 「헤테로토피아: (탈)근대 공간 이해를 위한 시론」,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제95집, 2009. 5, pp. 25-26을 참조함.

49) 힐디강 지음, 정선태·김진욱 옮김, 앞의 책, p. 159.

이들 부부에게 만주는 탈주의 공간이다. 이들이 피하여 온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자신이 희망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체의 견고한 질서이다. 그것은, 조선의 맑시스트 청년에게 '빨간 줄'로 상징되는 '비국민'이라는 낙인과 배제를 강제한 식민규율권력이기도 하고, 여학교 졸업 후 캐나다로 유학가기로 했던 신여성의 꿈을 '결혼'이라는 제도로 질식시켜버린 가부장적 질서이기도 하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찬도 씨는 과수원에서 농사를 지었고 이옥현 씨는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혼기가 찬 시누이와 어린 시동생을 돌보며 전통적인 며느리의 삶을 살았다.

> 그렇게 1928년 봄, 그 청년 김찬도와 나는 약혼을 했어요. 어머니는 반대하셨어요. "그리 훌륭하게 공부도 한 내 딸이 왜 결혼해서 황주 근처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 틀어박혀야 하느냐? 공부한 게 헛수고가 될 텐데"라고 하셨지요.
>
> (중략) 집안 살림을 건사하고 하녀들을 감독하는 일은 내 책임이었는데 알다시피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었어요. 이런 일을 전혀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척 고생했지요. 정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시부모님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서 낡은 방식을 철저히 고수할 뿐 현대적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반면 나는 원산과 평양 같은 대도시에서 살았고, 피아노를 공부하러 캐나다에 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고작 며느리가 된 거죠.
>
> 어머니는 내가 겪는 곤경 때문에 무척 마음 아파하셨어요. 나는 외동딸이었어요. 어머니의 보물이었지요. 이따금 어머니는 나 때문에, 내가 현대에서 전통으로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50]

이옥현 씨는 인터뷰 내내 자신이 여학교를 졸업한 후 "피아노를 공부하러 캐나다에 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특히 강조

50) 같은 책, pp. 158-159.

하였다. 어머니에게 이옥현 씨는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에 등장하는 '나' 같은 신소녀였던 터였고, 어머니는 딸이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염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염원과는 달리,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전도양양한' 청년은 호적에 '빨간줄'이 그인 채 전과자가 되어버렸고, 딸은 시골 마을에서 집안 살림을 건사하고 하녀들을 감독하며 '구식 며느리 노릇'에 골몰해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남편 김찬도 씨가 겪는 위기는 이옥현 씨가 다시 '자신의 삶'을 향해 탈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옥현 씨의 아버지가 '만주행'을 주선했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에게 '만주'는 식민지 조선과는 다른, '공간의 질이 다른 식민지'[51]였다. 조선 어디에서도 취직을 할 수 없었던 김찬도 씨는 만주에서 교사직을 얻었고, 이옥현 씨 역시 교사직을 얻어 구식 며느리 역할에서 벗어났다. 실패한 듯 보였던 '청년 맑시스트와 신여성의 결합'은 '만주'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이들 부부는 만주에서 그 전에 지니고 있었던 신념을 그대로 간직한 채[52] 살아갈 수 있었다.

> 빙판길을 건너 만주국에 들어가서 조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연변 부근의 용정으로 갔어요. 우리는 둘 다 캐나다 선교시설에서 일했어요. 남편은 은진학교에서 생물학과 화학을 가르쳤어요. 나는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가르쳤는데 모두 선교시설의 일환이었지요.

---

51) 야마무로 신이치 지음, 윤대석 옮김, 앞의 책, p. 8.

52) 이런 면에서 김찬도 씨는 이등 국민인 조선인의 욕망, 즉 제국의 '일등 국민'으로 도약하려는 욕망을 지닌 이들과는 변별된다. 김찬도 씨는 수원고등농립학교 재학 시절 농촌계몽운동을 반대하는 부모가 학비를 대주지 않겠다며 위협해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으며, 월남한 이후에도 결코 '뒷문'으로는 고향에 가지 않겠노라며 서울에서 정문을 통해 당당하게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나 김찬도 씨는 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199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병으로 숨졌다.

> 우리가 부임했을 때 놀랍게도 여기 직원들은 그것이 기막히게 좋은 일이라고 여겼나봐요. 그들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떠맡겼어요.
>
> (중략) 만주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은 지 2년이 됐고 대군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캐나다 구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었고 그 때는 일제가 간섭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선교사들조차 보호받을 수 없게 됐지요. 선교사들도 체포, 구금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을 당시에는 정세가 아직 차분했어요.
>
> 남편은 구체적으로 항일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교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조선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반일 감정을 불어넣어줬어요. 지금도 당시의 학생들로부터 남편이 일본의 수탈과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곤 해요.[53]

이들은 만주에서, 조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연변 부근의 용정에서 살았다. 두 사람 모두 캐나다 선교 시설에서 교사로 일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람과 문화를 접할 기회가 좀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주의 캐나다 구역에 거주하며 접한 글로벌한 경험이 그들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술한 자료만으로는 추측하기가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용정에서 머무는 동안 제국 일본의 간섭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옥현 씨를 구속할 일체의 가부장적 질서가 부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이들이 5년간 머문 '만주'는 "모든 장소들의 외부에서 놓여 있어 국지적으로 한정된 일종의 실제적인 장소"[54]로서의 헤테로토피아였다.

장혁주의 소설 「어느 독농가의 술회」에서 '만주'가, 아편중독자이자 범죄자였던 주인공이 "두 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55]며 참회하고 갱생하는 공간으로 표상되는 달리, 김찬도 씨에

---

53) 힐디강 지음, 정선태 · 김진욱 옮김, 위의 책, pp. 160-161.

54) Michel Foucault, ***Of Other Spaces, Heterotopias***, http://www.foucault.info/documents, 2013년 12월 30일 검색.

게 만주는 맑시스트 항일운동가로서의 신념을 간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는 비록 정치적인 조직체에서 구체적인 항일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수업을 통해 여전히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이는 훗날 선생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학생들의 편지를 통해 전해진다. 파시즘 체제 하에서 '불온한' 사상을 지닌 이들, 즉 '비국민'으로 분류되었던 이들을 '온건순량한' 인물로 만들고자 했던 '빨간줄'의 효력이 만주까지 미치지는 못했던 셈이다. 만주에서 이들의 일상은 규율 권력의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포박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들의 만주행이 개별적인 것이었고 원자화되어 있지만, 오히려 규모의 미미함으로 인해 '제국/식민지' 시스템에 의해 쉽게 탐지되지 않는 '유동성'을 동반한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은 제국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기도 한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논의에 의하면, 공포가 가장 무서울 때는 그것이 불분명할 때, 위치가 불확정할 때, 형태가 불확실할 때, 포착이 불가능할 때, 이리저리 유동하며, 종적도 원인도 불가해할 때[56]이다. 이들 부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움직임은 불확실하고 정체를 확연하게 알 수 없고 그래서 맞서 싸우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공포스러운 것이다. 규모적인 면에서 미미하지만 탈주의 움직임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이탈 에너지는 제국의 감시/통제 시스템이 탐지하거나 쉽게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제국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내적 균열의 지점이기도 하다. 만주는, 파시즘의 통제 메커니즘이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예측불가능한 움직임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제국의 틈새였다.

---

55) 장혁주, 「어느 독농가의 술회」, 『녹기』, 1943, 1.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편, 『일제 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2007, p. 231.

56) 이 글에서 유동성과 공포에 관해서는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함규진 옮김,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011, pp. 11-12.

5. 새로운 공간인가, 새로운 시각인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지리적 불균등발전론을 위한 노트」에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사고로부터 절연된 헤테로토피아적이고 격리된 '생활세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기패배적인 것"[57]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비는 이 견해를 통해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논의를 정면 비판하였다. 하비는 "자본축적, 시장관계, 국가권력 등에 좌우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정서적 관계들이 가능할 수 있는 보호된 공간(푸코가 "헤테로토피아적"이라고 말한)"[58], 즉, "대항적인 공간"[59]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척도'로 균질화되지 않는 이질적 공간, 즉 헤테로토피아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하비의 말대로 '자기패배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지금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푸코가 "자신만의 헤테로토피아가 없는 인간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60]고 밝힌 바와 같이 헤테로토피아는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다만 헤테로토피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뿐이다. 에드워드 소자(Edward W. Soja)는 "푸코의 이질적이며 상관적인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인지적 직관으로 채워져야 하는 알맹이 없는 공백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르페브르가 경험 공간이라고 말한 또 다른

57)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지음, 임동근 · 박훈태 · 박준 옮김, 「지리적 불균등발전론을 위한 노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문화과학사, 2010, p. 129.

58) 같은 책, p. 128.

59) 같은 책, p. 129.

60) Michel Foucault, ***Of Other Spaces, Heterotopias***, http://www.foucault.info/documents, 2013년 12월 30일 검색.

공간으로 정말로 생생하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간이며 구체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실천의 아비투스"[61]라고 평가했다. 소자(Soja)의 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자에 의하면, "그것(헤테로토피아)은 거의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전통적으로 공간을 정신적 혹은 물리적 형태로 바라보는 이중적 시각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62]이다.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존재 증명은 헤테로토피아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각'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소자의 논의는 의미심장하다.

이 글의 목적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주에서 찾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만주'이지만, '헤테로토피아'라는 스펙트럼을 통해 만주를 바라봄으로써, 만주에 실재하고 있었던 이질적이고 다층적인 면모들을 추적하고자 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의 바깥이 근대적 삶 자체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합리성으로 무장한 근대적 원리의 폭력적 국면을 넘어설 수 있는 탈근대적 지평을 지금 여기 이곳에 '실재하고 있는' 이질적이고 국지적인 국면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고도로 정치화된 전위적인 혁명을 통해 '희망의 지점'을 쟁취하고자 하는 태도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 글은 애초에,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자유의 흔적을 '헤테로토피아'를 통해 추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권력의 분할은, 지배하는 자는 자유롭고 지배받는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자유와 부자유의 구별[63] 속에서 성립된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 권력의 분할이란, 벤담이 판옵티콘 설계에서 기획했던 것처럼 정확하고 엄격하게 준수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

61) 에드워드 소자(Edward W. Soja) 지음, 이무용 외 옮김,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 p. 30.

62) 같은 책, p. 30.

63)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지음, 문성원 옮김, 『자유』, 이후, 2009, p. 46.

바와 같이 ‘만주행’이라는 공간적 실천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들은, 비록 제국 일본이라는 ‘검은 우산’ 아래에 있었지만, ‘지배/피지배’의 틈새를 횡단하며 ‘자유/부자유’의 분할을 해체하고 있었으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었다.

근래 10여 년간 식민지 말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규율권력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협력을 규명하는 작업이 상당히 진전되었다. 그러나 구조적 협력을 규명할수록 ‘제국/식민지’의 분할선은 더욱 견고하게 되며, 그래서 식민지에 내재하고 있는 역동적 에너지의 가능성은 거대한 구조 속에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을 삼아 구조에 장악되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포착하는 데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기 ‘만주’를 경험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틈새의 헤테로토피아’를 찾아나선 것은, ‘자기패배적인 것’이란 과연 무엇인지 따져보기 위한 그 출발점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힐디 강 지음, 정선태 · 김진옥 옮김, 『식민지 조선의 목소리, 1910~1945 : 검은 우산 아래에서』, 산처럼, 2002.

2. 논문

강정민 · 김동일, 「미셸 푸코와 미술관에 대한 테제들」,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66호, 2012. 12, pp. 135-160.

강해수, 「최남선의 ‘만몽(滿蒙)’ 인식과 제국의 욕망」,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2006년 가을호, pp. 58-89.

구연정,「상상과 실재 사이 : 헤테로토피아로서 베를린 : 발터 벤야민의「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시절」에 나타난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카프카학회,『카프카연구』제29권, 2013. 6, pp. 123-142.

곽은희,「만몽문화(滿蒙文化)의 친일적 해석과 제국 국민의 창출 -최남선의「滿蒙文化」와「滿洲 建國의 歷史的 由來」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회,『한민족어문학』제47집, 2005. 12, pp. 243-278.

곽은희,「프로파간다화된 만주 표상과 욕망의 정치학」, 만주학회,『만주연구』제16집, 2013. 12, pp. 171-196.

김기훈,「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 제국내 이민정책의 유산」, 한석정・노기식 편,『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pp. 197-214.

김철,「몰락하는 신생: '만주'의 꿈과『농군』의 오독」, 상허학회,『상허학보』제9집, 2002, pp. 123-159.

배정희,「카프카와 혼종공간의 내러티브 -『국도 위의 아이들』과 헤테로토피아」, 한국카프카학회,『카프카연구』제22권, 2009. 12, pp. 43-60.

이경훈,「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한국근대문학회,『한국근대문학연구』, 2003. 4, pp. 92-119.

임성모,「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2010, pp. 37-63.

장세룡,「헤테로토피아: (탈)근대 공간 이해를 위한 시론」, 대구사학회,『대구사학』제95집, 2009. 5, pp. 285-317.

전성곤,「만주 '건국대학' 창설과 최남선의 건국신화론」, 한국일어일문학회,『일어일문학연구』제56권 2호, 2006. 2, pp. 165-185.

정규영,「콜로니얼리즘과 학문의 정치학 - 15년전쟁하 경성제국대학의 대륙연구 -」, 교육사학회,『교육사학연구』제9권, 1999. 7, pp. 21-36.

정종현,「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한

국문학연구』 제28집, 2005. 6, pp. 229-259.
정준영,「경성제국대학의 '대륙' 연구 - 학술연구조사의 정치성과 식민지대학의 사명」, 만주학회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공동주체 학술대회 발표집『만주 연구의 스펙트럼』, 2014. 1, pp. 27-43.
조현설,「민족과 제국의 동거 - 최남선의 만몽문화론 읽기」,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2010, pp. 15-36.
최정수,「미국의 세계안보전략과 만주 개방정책의 실체」, 박준기 · 최정수 · 정상수 · 최재희 지음,『아시아의 발칸, 만주와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07, pp. 70-105.
허경,「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 초기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도시인문학연구』 제3권 제2호, 2011. 12, pp. 233-267.
한석정,「만주 웨스턴과 내셔널리즘의 공간」, 한국사회사학회,『사회와 역사』 제84집, 2009. 12, pp. 5-30.
한석정,「박정희, 혹은 만주국판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일본비평』 제3호, 2010. 8, pp. 120-137.
한석정,「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사회적 지위」, 동북아역사재단,『동북아역사논총』 제31권, 2011. 3, pp. 11-39.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톨렌(Georg Christoph Tolen),「열린 공간과 상상력의 헤테로토피아」, 슈테판 귄첼 엮음, 이기홍 옮김,『토폴로지 : 문화학과 매체학에서 공간 연구』, 에코리브르, 2010, pp. 127-151.
까오유엔(高媛),「'낙토(樂土)'를 달리는 관광버스 - '만주' 도시와 제국의 드라마투르기」, 요시미 슌야(小森陽一) 외 지음,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 근대와 젠더 세미나팀' 옮김,『확장하는 모더니티』, 소명출판, 2007, pp. 210-243.
데릭 그레고리(Derek Gregory) 지음, 최병두 옮김,「에드워드 사이드의 상상적 지리」, 마이크 크랭(Mike Crang) · 나이절 스리프트(Nigel Thrift) 엮음,『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르, 2013, pp.

503-578.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지음, 임동근 · 박훈태 · 박준 옮김, 「지리적 불균등발전론을 위한 노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문화과학사, 2010, pp. 111-188.
돈 미첼(D. Michell) 지음, 「경관(landscape)」, 데이비드 앳킨스 외 3인 편저, 이영민 외 4인 옮김, 『현대 문화지리학』, 논형, 2011, pp. 112-125.
마르쿠스 도엘(Marcus A. Doel) 지음, 최병두 옮김, 「지리학에서 글렁크 없애기: 닥터 수스와 질 들뢰즈 이후의 공간과학」, 마이크 크랭(Mike Crang) · 나이절 스리프트(Nigel Thrift) 엮음,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르, 2013, pp. 201-231.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지음, 「공간, 지식, 그리고 권력」, K. Michael Hays 편, 봉일범 옮김,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Spacetime · 시공문화사, 2010, pp. 566-582.
미셸 푸코와의 대담, 「권력 문제에 대한 해명(Clarifications on the Question of Power)」, 미셸 푸코 외 지음, 정일준 편역,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새물결, 1995, pp. 289-302.
크리스 필로(Chris Philo) 지음, 최병두 옮김, 「푸코의 지리학」, 마이크 크랭(Mike Crang) · 나이절 스리프트(Nigel Thrift) 엮음,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르, 2013, pp. 351-403.

3. 단행본

강상중 · 현무암 지음, 이목 옮김,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 책과 함께, 2010.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민족문학연구소 편, 『일제 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2007.
서경식 · 서민정 · 김용규 · 이용일 지음, 『경계에서 만나다: 디아스포라와의 대화』, 현암사, 2013.
오양호,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연구』, 문예출판사, 1996.
조진기, 『일제 말기 국책과 체제 순응의 문학』, 소명출판, 2011.

사이토 준이치(齋藤 純一) 지음, 이혜진・김수영・송미정 옮김,『자유란 무엇인가: 벌린, 아렌트, 푸코의 자유 개념을 넘어』, 한울아카데미, 2011.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 지음, 후지이 다케시(藤井たけし) 옮김,『번역과 주체: '일본'과 문화적 국민주의』, 이산, 2005.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지음, 윤대석 옮김,『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돈 미첼(D. Michell) 지음, 류제헌・진종헌・정현주・김순배 옮김,『문화정치 문화전쟁(Cultural Geography)』, 살림, 2011.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지음, 이광래 옮김『말과 사물 : 인문과학의 고고학』, 민음사, 1986.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지음, 양영란 옮김,『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에드워드 소자(Edward W. Soja) 지음, 이무용 외 옮김,『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yard) 지음, 유정완・이삼출・민승기 옮김,『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1995.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지음, 문성원 옮김,『자유』, 이후, 2009.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이일수 옮김,『액체근대(Liquid Modernity), 도서출판 강, 2009.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함규진 옮김,『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011.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지음, 김유동 옮김,『마니아 모랄리아 :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 길, 2005.

헨리 위그햄(H. J. Whigham) 지음, 이영옥 옮김,『영국인 기자의 눈으로 본 근대 만주와 대한제국』(원제는 Manchuria and Korea, 1904), 살림 출판사, 2009.

W. J. T, Mitchell, ***Landscape and Power***, edited by W. J. T, Mitchell, secon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Michel Foucault, ***Of Other Spaces, Heterotopias***, http://www.foucault.info/documents, 2013년 12월 30일 검색.

Manchuria: Heterotopia Located in between the Interstice

Kwak, Eun-Hee

In this paper, I raised the grain of Manchuria as a heterotopia to the surface, using Under the Black Umbrella : Voices from Colonial Korea, 1910 ~1945 as a text which is an oral kit to had interviewed the korean elderly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Even though the ordinary people of colonial Korea were dominated by Imperial Japanese called 'Black Umbrella', they had deconstructed the division of the "freedom / unfreedom" crossing the interstice between the "dominance / subordinance" and "tradition / modernity", through the spatial practice of going to Manchuria. For them, Manchuria was the space of keeping their own belief as well as space for escape that could practise a desire and plan to change their life in a specific daily life. The conflict between 'tradition / modernity' and 'patriarchal ethics / personal desires' was adjusted to be compatible through a spatial practice of going to Manchuria, and people could keep their faith.

I wanted to restore the figure of 'Manchuria' as a 'multidimensional space without a common criterion', by examining the heterogeneous and multi-layered look existing in space of Manchuria. Through this work, ultimately, I wanted to track the freedom trail of ordinary people. The breakaway energy to situate in the movement of breakout toward Manchuria was the point of the internal crack to cause to an anxiety and fear of the Empire, in that th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of the Empire could not easily detect it. Manchuria was still a interstice of the Empire which the control mechanism of fascism could not notice through the overall view, and was still flowing an unpredictable movements.

Key word: Manchuria, heterotopia, freedom, interstice, demarcation, empire, colony, escape, space, fluidity

곽은희
소속: 대구대학교 기초교육원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전화번호: 010-2996-7301
전자우편: ehk100@ynu.ac.kr

이 논문은 2014년 3월 24일 투고하여
2014년 4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16일 게재 확정함.